

CHAPTER 5. 특수대학·계열 입시 성공 필승 전략

4) 직업 선호도 1위 교사 가장 빨리 되는 교대 진학의 길

2017년 전국의 각 시·도가 초등교사 임용 인원을 줄이면서 교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수백 대 일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어가며 취업에 도전해야 하는 일반 대학생들에 비하면 여전히 교대 의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서울 지역 공립 초등교사 임용 시험 경쟁률(2017년)조차도 2.88대 1에 그쳤으니까요. 무엇보다 일단 되기만 하면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교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그렇다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교대에 진학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대에 진학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교대에 진학해 무사히 '교사'의 꿈을 이루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대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로부터 살펴본 후 교대 입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대 졸업자에게는 '임용고시 응시자격' 주어져

교대는 초등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으로 모든 학생의 전공이 '초등교육학'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입학 이후 학교별 별도 기준에 따라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생활과학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유아 교육 △특수교육 등에서 심화과정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교대에 입학하면 모든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사로서 필요한 전공과 심화과정, 교양과정 수업을 듣게 됩니다. 교양과정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로서의 인격과 현대 사회에 필요한 폭넓은 교양을 갖추고, 전공과정의 수업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교육실습'을 통해 직접 학교에 나가 전공 및 교양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 교원대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초등교육과 또는 전국 10개 교대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인 '임용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각 교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의 임용 고시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까지 부여됩니다. 결국, 교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교대 졸업'인 셈입니다.

교대생들이 졸업 후 치르는 임용고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서울시 임용고시를 예로 들면,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을 통과한 뒤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 실연 등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중이 압도적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교대	초등교육과
△공주교대 △광주교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초등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중 한 곳에 진학해야 합니다.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13개뿐이라니. 교대 입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 교대는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수시, 정시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전형요소 면에서 일반대학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2018 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10개 교대 및 3개 초등교육과는 전체 선발인원의 56.9%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정시로는 전체 선발인원의 43.1%를 모집하지요. 일반대학에 비해 정시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수능만 100%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대학의

정시와는 달리 대부분의 교대는 정시에서도 학생부와 수능, 면접을 골고루 반영합니다. 일반대학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학생부 성적과 면접 준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교대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부와 면접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각 전형요소에 매겨진 기본점수를 감안한 실질 반영비율을 따져보면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와 면접의 비율이 두 자리 수까지 올라 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모집시기·전형별 신입생 선발 규모

수시	학생부종합	1747명(45.3%)
	학생부교과	434명(11.3%)
	논술	10명(0.3%)
	수시 총계	2191명(56.9%)
정시		1662명(43.1%)

수시 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가장 큼니다. 수시 내 비중으로만 따지면 학생부종합전형이 약 80%나 됩니다. 나머지 20%는 대부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선발됩니다. 논술전형 선발인원은 단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미미합니다. 유일하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만 수시 논술전형을 운영했습니다.

어떤 전형이든 여러 개 전형요소에 동시 대비해야

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대부분 교대가 다단계 전형 방식을 택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지원자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요. 면접 비중은 최소 20%에서 최대 60%로 학교마다 다양합니다.

서류평가 대상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신과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입니다. 각각의 서류에 별도의 배점을 매기지 않고 정성 평가와 정량평가를 두루 활용해 학생의 교직역량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교대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습니다.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비교과 영역이 내신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에 다수 지원할 경우 내신 성적의 변별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교 3년간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비교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대 면접은 집단면접, 공통질문면접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지원자 1인이 면접관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 개별면접 외에 집단면접이나 토론면접 등이 진행되므로 교대 지원자들은 체계적으로 면접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의를 주도하는 능력이나 발표 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고교 3년간 면접에서 필요한 역량을 꾸준히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대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어떨까요? 교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모집정원의 일정 배수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면접 등의 요소를 활용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것이지요. 그럼 2단계만 놓고 보면 학생부종합전형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이라는 이름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비중이 80~90%로 매우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학생부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신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성적이 대체로 우수하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더라도 오로지 내신 성적만을 믿고 비교과나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강조할 수 밖에요. 교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고교 재학 중 학생부, 면접, 수능 모두를 놓치지 마세요.

고교 3년 '내신 관리'에 총력,

비교과는 교과 연계 활동 중심으로

교대 지원자라면 내신 관리는 정말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바로 교대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 때문이죠. 교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1, 2, 3학년 모든 과목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모든 교과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신 반영 시 학년별

가중치가 없는 교대가 많으므로 각 학년별 교과 성적을 고르게 높게 받아야 합니다. 내신 시험과 수행평가는 수업 내용 위주로 출제되므로 1, 2, 3학년 가릴 것 없이 모든 교과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시험 기간에만 바짝 공부하기보다 매 학년 배우는 내용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결국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2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3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향후 수능 준비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신 공부를 하며 개념을 탄탄히 다지고 이에 더해 수능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2학년 때는 1학년 때 쌓았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문제유형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 3학년 때는 1, 2학년 때 쌓았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재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신과 수능을 구분 짓지 않은 것처럼 교과와 비교과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내신 관리를 하며 쌓은 교과 지식을 적극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또한 평소 모든 과목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 두면 별도의 준비 없이도 영어 경시대회, 사회탐구 경시대회, 과학탐구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등 각종 교과 경시대회에 참여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 지원자는 입시를 위해 다양한 것을 고르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선 안 됩니다. 비교과 활동을 채 우기 위해 억지로 시간을 마련하지 말고 교과와 연관된 폭넓은 활동으로 교과와 비교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것이죠.